

“일선 학교 해양교육 미흡... 정규 교육과정 반영해야”

본보·전남대 ‘해양영토’ 심포지엄
해양 의존도 높지만 교육은 소홀
초등교육 ‘영역·단원’ 구체화 시급
지역 연계 해양관련 선택과목 개설
해양특성화 글로컬 대학 육성 주력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해양에 대한 의존도는 높으나 해양영토 관련한 학교 교육은 사실상 전무해 정규 교육과정에 확대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일보와 전남대학교가 주최·주관한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14일 전남일보 지하 1층 승정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선 학교의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과정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강조했다.

문병찬 광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해양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다”면서 “표면적 전달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 ‘왜’ 해양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목표 설정을



문병찬 광주교대 교수 등 주제발표자, 김동주 전남대 연구위원 등 토론자들이 14일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에서 열린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바탕으로 현재 교육 패러다임에 기반한 해양교육 확대 당위성 개발을 통해 초등교육편제를 참고한 영역, 단원, 차시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철 담양고등학교 교장은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자율 프로젝트 활동 편성 및 운영 등 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이 확대된 만큼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역과 연계한 해양관련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은 “해양교육을 핵심교양 강의로 신규 개설하는 대학교육과정 반영 및 해양특성

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컬 대학 육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을 좌장으로 김동주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교육의 중요성’, 빙기창 전남대 무인

도서연구센터 연구교수의 ‘해양교육을 위한 섬·해양 실태조사와 적용’, 손준호 서일초 수석교사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해양교육 활성화’, 박광재 국립군산대 전문연구위원의 ‘전남의 섬·해양을 이용한 해양교육 방안’과 이경석 전남도 섬정책팀장의 ‘현장 교육 통한 관심 제고’ 등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김수형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 ‘신해양 시대’에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해양영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 교육”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뜻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은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미래 세대가 해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을 갖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이 심포지엄이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킬러문항’ 배제... “공교육만으로 변별력 확보”

수능 출제경향 분석

EBS 연계율 과목별 50% 수준
지난해보다 쉬운 난이도 분석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난이도가 평이했던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돼 전반

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다.

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종철 동국대 교수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면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출제 방향을 밝혔다.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으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난이도를 적정하게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수능 출제본부는 1교시인 국어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과목별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

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것 방향으로 문항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능 국어영역 난이도가 지난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다는 EBS 현장교사단 분석이 나왔다.

지난 9월 모의평가는 국어 만점자가 4478명이 나올 정도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수능의 전체 성적을 좌우한다고 평가받는 수학 과목은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추가 학습을 요구하는 킬러문항은 수학에서도 배제됐고 동시에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제가 적절히 구성됐다는 평가다.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분명히 난이도는 조금 더 높지만, 일반적으로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을 똑같이 내면 2개월가량 추가로 공부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인 체감은 비슷할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출제본부는 수학 영역의 경우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히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향했고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서 다룬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고 말했다. > 4면에 계속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